

# 한국문학번역원의 출판정책

곽현주(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판교류본부장)

## 1. 해외출판문학시장에서 한국문학의 위상

2001년 한국문학번역원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부터 한국문학의 해외진출에 대한 공적인 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었고, 한국문학 번역과 해외출판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평균 약 50여종이 해외출판 되었으나, 이제 한국문학은 40여개 언어로 한 해 180종 이상이 해외출판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문학이 한류콘텐츠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문학한류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 한국문학이 매년 300종이상 번역출간되는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한국문학번역원 보도자료 2022.1.18.).

특히, 한국문학의 해외문학상 수상이 연이어 지면서 한국문학은 세계문학의 틀 속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3년 오정희의 <새>가 한국인 최초로 독일 리베라투르상(Liberaturpreis)을 수상한 이후,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2012년 맨아시아 문학상(Man Asian Literary Prize)를 수상하고,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2016년 맨부커국제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를 수상하면서 한국문학은 더 많은 해외독자들과 만나게 되었고, 이후 한국문학의 해외주요 문학상 수상 및 입후보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2022년 상반기만 해도 김금숙의 <풀>이 체코 유리엘 만화상을, 손원평의 <서른의 반격>이 일본 서점대상을 수상하였고, 김소연의 시집 <한 글자 사전>이 일본 번역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제 더블린 문학상에 김숨 <한 명>이, 맨부커국제상 부문에 박상영의 <대도시 사랑법>, 정보라의 <저주토키>가 후보로 지명되었다. 이 같은 한국문학 해외수상과 입후보 건수는 최근 5개년 간 약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한국문학번역원 보도자료 2022.5.27.).

이렇게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시장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면서 영어권의 펭귄랜덤하우스와 하퍼콜린스, 프랑스의 갈리마르와 로베르 라퐁, 스페인의 플라네타 그룹, 일본의 지쿠마쇼보와 하쿠스이샤, 터키의 도안 등 각국의 대형출판사들이 한국문학 번역출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 및 주요 문예지에서 한국문학작품을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은 2020년 독일 최고 추리소설로 선정되었고,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은 2020년 미국타임지에서 필독서 12종에 추천되고, 2021년 영국 추리작가협회 대거상을 수상하였다. 손원평의 <아몬드>는 2020년 미국 아마존 Best Book of May에 선정되었고 아시아권 최초 2020 일본서점대상 번역소설상을 수상하였다. 김연수의 <설계자들>은 2019년 미국 뉴욕타임즈가 뽑은 '베스트 윈터 스릴러'에 선정되었고, 2020년 프랑스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 후보에 올랐으며,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은 전 세계 26개국에서 출판되고 60만부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

이제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출판사의 적극적, 자발적 수용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은 해외출판문학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언어권별, 국가별 차별화된 해외출판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뿐 아니라, 상업성이 낮으나 작품성이 높은 한국문학 번역출판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동안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문학번역원의 해외출판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문학번역원의 소명을 국내외 관계자들과 함께 이루기 위한 앞으로의 해외출판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한국문학번역원의 출판정책 현황

### 가. 한국문학 번역출판정책 추진의 근거

한국문학번역원은 문학진흥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 교류, 번역 인력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2.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문학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4.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6.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

### 나. 한국문학번역원 정책방향

한국문학번역원은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의 장을 여는 중추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2년 현재 한국문학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 구축,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 추진, 한국어콘텐츠 번역지원 및 번역인력 양성, 한국문학 해외소개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시행이라는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문학 해외출판정책은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2001년 한국문학번역원 설립초기,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인지도가 낮았던 시기에는 번역가가 해외에 소개하고 싶은 작품을 완역지원 한 후, 완역원고 출간을 희망하는 해외출판사를 섭외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외출판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완역된 원고가 해외출판되기까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임직원, 저작권 에이전트들의 많은 수고가 따랐으며, 불모지에서 싹을 키우는 심정으로 묵묵히 지속해온 노력의 결과 한국문학은 세계문학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한국문학번역원 10년사, 2011). 2016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국제상 수상한 것을 계기로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출판사와 해외독자의 관심이 증폭되고, 해외주요 문예지에 한국문학이 조명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문학 해외출판정책은 한국문학 저작권을 선구매하여 번역출판을 신청하는 해외출판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 다. 한국문학 출판정책 중점 추진사항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 출판정책은 크게 공모사업과 기획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공모사업

## 가) 번역지원 공모사업

번역가가 직접 한국문학작품을 선정하여 응모한 번역원고 중 뛰어난 번역작품에 대한 해외출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1년부터 2021년동안 번역지원 공모사업으로 총 1,217건을 지원하였으나 해외출판되지 못한 건이 34%나 되고, 해외출판사와 사전 협의 없이 번역가가 선택한 작품의 번역원고가 해외출판으로 이어질 확률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번역지원 공모선정 건수는 점진적으로 축소 되어 왔고, 번역지원 공모사업은 2022년 종료가 된다.

번역지원 공모사업 종료로 번역가 지원정책이 축소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최근 2년간 해외출판사의 번역출판동시지원 작품 중 87%가 기존번역가가 작품을 선정하고 있고, 해외 독자 수요에 따라 해외출판사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 없이도 자생적으로 출판하는 한국문학작품이 10종이나 되고 있어, 2023년부터는 해외출판정책을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동시지원 사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수요와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동안 번역지원 공모사업이 신진번역가를 발굴하는 의미도 컸던 만큼, 향후 한국문학디지털플랫폼(KLWAVE)을 통해 신진번역가의 번역작품이 해외출판으로 연계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나)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동시지원 사업

해외출판사에서 해외 각국의 수요에 따라 한국문학작품의 저작권을 구매한 후 한국문학번역원에 번역과 출판을 동시에 지원신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해외출판사에 번역출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출판시장에서 한국문학의 자생적 수요를 촉진하고, 시의성 있는 한국문학 해외소개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사업 도입 초기인 2015년 지원건수는 20건이었으나 해마다 증가하여 2021년 지원건수는 144건이 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180여건의 해외출판 번역출판 동시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2022년도에는 분기별 신청건수 심사를 통하여 지원대상 해외출판사를 선정하고 있으나, 2023년도 부터는 한국문학디지털플랫폼(KLWAVE)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시접수하고 매월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해외출판사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 2) 기획사업

### 가) 국내 출판사 및 에이전시 완역지원 사업

한국문학을 수출하는 국내 출판사와 에이전시의 해외 저작권 수출 주력작품에 대한 완역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영역 주도의 한국문학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출판시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문학평론가, 출판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신청 작품의 작품성, 해외수용도, 번역출판섭외정도 등을 심사하고,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번역아카데미 출신의 우수한 번역가를 추천하여 품질 좋은 번역작품이 되도록 협업하고 있고, 선정된 기관은 온라인 출판인 글로벌 교류행사에 참가하여 역량있는 해외출판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국내출판사 및 에이전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문학작품의 저작권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의견이 다수여서 앞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디지털 한국문학 플랫폼(KLWAVE)을 통해 온라인 신청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완역작품의 해외출판사 연계를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 나) 한국문학 시리즈 해외출판지원 사업

언어권별 해외 우수출판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한국문학의 시대별 주요 흐름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의 번역출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 고전문학 작품의 체계적 해외진출을 위한 고전선집 번역출판지원, 고전대표작품 선정하여 신규 번역출판지원 및 재출판 지원을 하고 있고, 문학한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 미진출 현대문학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번역출판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는 러시아로 번역된 한국고전선집, 터키어로 번역된 홍길동전, 베트남어로 번역된 구운몽, 일본어로 번역된 한국근대단편소설집, 영어로 번역된 현대시선집 등이 시리즈로 해외출판될 예정이다.

## 라. 한국문학출판지원 현황

한국문학번역원이 2001년부터 2021년도까지 해외출판지원한 작품은 1,696건이며 42개의 다양한 언어로 출간되었다. 장르별로 보면 소설이 59.6%로 가장 많고, 시가 16.3%, 인문사회도서가 8.6%, 고전이 8.1%, 희곡 등이 3.8%, 아동도서가 3.6%이다. 언어권별 해외출판지원 상황은 영어가 17.4%, 중국어가 12.6%, 일본어가 11.6%, 프랑스어가 11.4%, 독일어가 8.1%, 스페인어가 6.7%, 러시아어가 6.4%, 베트남어가 4.7%, 체코어가 2.5%, 이탈리아어가 2.4%, 몽골어가 1.7%, 터키어가 1.7%, 아랍어가 1.5%, 루마니아어가 1.4%, 폴란드어가 1.3%, 스웨덴어가 0.9% 등이다. 영어권, 일본어 및 중국어권 등이 전체의 4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고, 차순위로 유럽어권이 35%정도이고, 동남아시아권이 5.4% 정도이다. 한국문학작품이 얼마나 많은 언어권에서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출판되었는지 수치로 보여 주는 연도별 현황표는 아래와 같다.

(단위: 건)

구분/연도	2001~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	
언어권	19	18	16	15	15	15	15	14	14	18	14	18	27	24	27	26	29	42	
지원건수	공모사업	189	58	43	39	43	46	46	45	42	93	59	56	37	31	36	24	20	907
	기획	11	3	5	6	9	7	8	12	11	17	14	22	22	17	24	40	22	250
	해외출판사 번출지원	-	-	-	-	-	-	-	-	-	-	20	39	68	71	91	106	144	539
계	200	61	48	45	52	53	54	57	53	110	93	117	127	119	151	170	186	1,696	

[출처: 2021년도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65쪽]

(단위: 건)

장르/연도	2001~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	
현대	소설	102	32	21	24	25	26	30	35	40	65	51	74	71	61	103	115	135	1,010
	시	53	16	9	8	8	9	10	12	4	13	16	16	21	20	21	22	18	276
	희곡 등	6	1	6	-	-	4	1	-	-	-	2	2	4	9	4	9	16	64
고전	26	5	7	6	16	10	6	4	3	7	5	3	11	6	7	8	7	137	
인문·사회	12	7	4	6	3	4	6	3	4	14	16	17	15	10	13	8	5	147	
아동	1	-	1	1	-	-	1	3	2	11	3	5	5	13	3	8	5	62	
계	200	61	48	45	52	53	54	57	53	110	93	117	127	119	151	170	186	1,696	

[출처: 2021년도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65쪽]

언어권별 · 연도별 출간 현황

(단위: 권)

언어권/연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
영어	48	7	8	8	6	11	8	3	12	20	19	23	23	22	28	29	20	295
프랑스어	35	8	11	3	5	4	2	8	10	13	8	21	12	12	8	13	21	194
독일어	39	5	5	3	5	6	8	7	3	7	8	7	6	1	8	11	9	138
스페인어	17	6	5	10	3	3	8	6	2	8	5	5	5	5	8	11	6	113
러시아어	8	-	-	1	5	9	5	4	4	8	8	8	9	9	12	11	8	109
중국어	16	7	4	7	10	3	7	10	8	23	18	16	5	20	17	22	21	214
일본어	1	2	3	4	5	2	4	8	2	9	11	14	20	19	30	25	38	197
그리스어	-	-	-	-	-	-	-	-	-	1	-	-	1	-	-	2	2	6
네덜란드어	-	1	-	1	1	-	-	-	-	-	-	-	1	-	-	3	1	8
노르웨이어	-	-	-	-	-	-	-	-	-	-	-	-	1	-	1	-	1	3
덴마크어	-	-	-	-	-	-	-	-	-	-	-	-	-	-	-	-	1	1
루마니아어	4	-	1	-	2	-	-	-	-	1	1	2	2	1	3	2	4	23
리투아니아어	1	-	1	-	-	-	1	-	-	1	-	1	-	-	2	1	-	8
몽골어	2	2	1	-	-	-	-	2	2	-	1	5	5	3	3	2	1	29
베트남어	2	3	3	1	3	7	3	2	3	7	6	2	11	8	4	7	7	79
벵골어	-	-	-	-	-	-	-	-	-	-	-	-	1	-	-	2	-	3
보스니아어	-	-	-	-	-	-	-	-	-	-	-	-	-	-	-	-	1	1
불가리아어	-	2	-	-	1	1	1	-	-	1	-	-	2	-	1	1	1	11
세르비아어	4	1	-	1	-	1	-	-	-	-	-	-	-	1	1	-	-	9
스웨덴어	5	2	1	-	1	-	1	2	-	-	-	-	3	1	-	-	-	16
슬로베니아어	-	-	-	-	-	-	-	-	-	-	-	1	-	-	-	-	-	1
아랍어	1	4	-	-	-	-	-	-	1	1	-	-	2	-	1	6	9	25
아제르바이잔어	-	-	-	-	-	-	-	-	-	-	-	-	-	1	2	1	2	6
알바니아어	-	-	-	-	-	-	-	-	-	-	-	-	-	-	1	1	-	2
에스토니아어	-	-	-	-	-	-	1	1	-	-	-	-	-	-	-	-	-	2
우즈베키스탄어	-	-	-	-	-	-	-	-	-	-	-	1	1	1	-	-	-	3
우크라이나어	-	1	-	-	-	-	-	-	-	-	-	-	-	-	2	-	1	4
이탈리아어	7	3	1	-	2	1	-	-	1	1	-	6	3	1	3	5	6	40
인도네시아어	-	-	1	-	-	-	-	-	-	-	-	-	1	2	2	3	3	12
조지아어	-	-	-	-	-	-	-	-	-	-	-	-	-	1	1	-	-	2
체코어	4	4	-	2	2	1	2	1	3	4	4	1	2	2	3	4	3	42
카탈로니아어	-	-	-	-	-	-	-	-	-	-	-	-	1	1	-	1	-	3
크로아티아어	-	-	-	-	-	-	-	-	-	-	-	-	-	1	-	2	2	5
태국어	-	-	-	1	-	-	-	1	-	-	1	-	-	-	-	1	-	4
터키어	4	-	1	1	-	1	2	-	-	1	-	1	3	1	3	3	7	28
페르시아어	-	-	-	-	-	-	-	-	-	-	-	-	1	-	-	-	3	4
포르투갈어	-	-	-	-	-	1	-	-	1	1	-	-	2	4	3	1	3	16
폴란드어	1	-	1	-	1	2	-	2	1	3	2	2	2	-	2	-	3	22
핀란드어	-	-	-	-	-	-	-	-	-	-	1	-	-	1	1	-	1	4
헝가리어	-	1	1	1	-	-	1	-	-	-	-	1	2	1	1	-	-	9
히브리어	-	-	-	1	-	-	-	-	-	-	-	-	-	-	-	-	1	2
힌디어	1	2	-	-	-	-	-	-	-	-	-	-	-	-	-	-	-	3
계	199	59	48	44	52	53	54	57	53	110	93	117	127	119	151	170	186	1,696

[출처: 2021년도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66쪽]

### 3. 한국문학번역원의 출판정책 향후과제

그간의 한국문학번역원의 해외출판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문학 해외 수상 및 입 후보 소식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성과는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해외출판시장의 관심증대와 판권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미치고 있다. 최근 5년간(2021년~2020년) 해외출판된 한국문학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34종의 작품의 누적 5천부 이상 판매되었고, 한강, 손원평, 정유정 작가 등은 출간 이후 3~4년동안 적게는 2만부에서 많게는 10만부에 가까운 판매량을 보이며 꾸준한 해외수요를 증명했다.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나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처럼 특정 국가에서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가 된 작품이 여러 언어권에서 출판되어 높은 판매고를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한국문학번역원 보도자료 2022.1.28.). 2022년도 맨부커 국제상 부문 최종후보로 올라갔던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키>는 17개국에서 판권계약이 체결되었다(한국문학번역원 보도자료 2022.5.27.)

앞으로 한국문학번역원은 문학한류의 도입기를 지나 문학한류의 성장기 진입을 위하여 한국문학 해외출판의 양적확대와 질적 관리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전략적으로 해외출판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가. 해외 수용도 맞춤형 출판정책

한국문학번역원은 해외수용도 맞춤형 해외출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매년 국가별 언어권별 해외출판시장의 독자층, 선호 장르, 한국문학인지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보다 심층적으로 해외문학출판시장의 매커니즘과 해외출판사 역량조사, 해외한국문학친화지수 개발 등을 통해 해외출판시장 진출확대 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진행되어온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출판역량과 인지도가 높은 해외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 시장성 높은 한국문학시리즈 출판지원을 확대하고, 문학성 있는 한국문학작품의 균형있는 소개를 위해 문학한류 전략국가 중심으로 주요 해외문예지에 한국문학 특집호 발간 및 작품 게재를 확대하는 등 해외수용도 맞춤형 해외출판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 나. 해외출판도서의 번역품질 관리

한국문학번역원의 해외출판정책 방향의 주류인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동시지원 사업은 해외출판사가 각국의 해외독자층이 선호하는 한국문학작품의 저작권을 선구매하여 번역출판지원 신청을 하고,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약정기한 내에 번역된 작품이 출간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번역의 품질관리를 별도로 하기는 어려워, 해외출판사가 우수한 번역가를 섭외하여 질 좋은 번역을 하리라는 기대와 믿음에 전적으로 번역의 품질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해출판지원 이후 출간작품의 번역품질 관리를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번역상 대상작품 번역심사과정에서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번역심사 절차를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언어권별 역량 있는 국내외 심사위원의 폭을 보다 확대하고, 해외출판된 한국문학작품에 대한 해외문예지 기고문, 해외독자의 리뷰 등을 번역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번역심사과정에서 평가등급이 우수한 해외출판사에 대해서는 지원범위를 확대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 다. 해외출판 지원 장르 확장

세계 독자들이 한국문학을 보다 폭넓게, 깊이 있게 접하면서 한국문화콘텐츠의 이해를 더 높여가고,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으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보다 다양한 장르의 한국문학작품을 번역출판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진출 작가 발굴 및 다양한 한국문학콘텐츠를 확보해 가고, 고전, 근대문학, 현대문학간 비중의 균형감을 가지고 시, 소설, 평론, 에세이, SF, 시나리오, 그래픽노블 등 다양한 장르의 해외출판지원을 언어권별, 국가별로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 라. 해외출판 언어권 확대

한국문학 해외출판은 영어권의 성공여부가 다른 언어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영어권 해외출판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문학한류 전략국가 및 한국문학의 해외소개 촉진이 필요한 국가에 대해서는 시장성이 기 확보된 작품을 중심으로 해외출판지원의 언어권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한류열풍으로 한국문화콘텐츠 수요가 큰 동남아시아권, 아랍어권 등은 온라인 독서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고려하여 e-book형태의 해외출판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마. 디지털플랫폼 활용한 국내외 출판사와의 협업 강화

2022년도 10월 하순부터 운영하는 한국문학디지털플랫폼(KLWAVE)을 통하여 한국문학 해외출판지원 사업은 앞으로 온라인에 기반하여 관리될 예정이다. KLWAVE를 통해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동시 지원 사업 추진 과정이 온라인화로 진행되고, 해외출판사가 필요로 하는 한국문학 작품의 저작권 정보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국내출판사가 희망하는 해외진출 한국문학 작품의 저작권 정보에 대한 업로드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 출판사 간 양방향 소통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출판된 번역서에 대한 해외독자의 리뷰 및 외신보도가 실시간 게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인들이 한국문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